

솔내음 도서관



알려드립니다

-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많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학교도서관 홈페이지주소 <http://dls.gglec.go.kr/>

-책 분실 시, 동일 도서로 변상해야만 도서관 자료를 대출 할 수 있습니다.

-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학교 도서관 책이 있다면 가져다 주세요.

무릇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책상을 잘 정돈하고, 마음가짐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, 책을 가져다가 가지런히 놓고는 몸을 바른 자세로 책을 대하고, 자세하게 글자를 보며, 자세하고 분명하게 읽는 것이다.
-주희

책은 한번 읽히면 그 구실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. 거듭 읽고 애독하며, 다시 손을 떼어 놓을 수 없는 애착을 느끼는 데서 그지없는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.
- 러스킨

추천도서

까만 아기 양



글:엘리자베스 쇼
출판사: 푸른그림책

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'다름'에 대한 편견과 화합의 길, 그리고 다 함께 사는 사회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누구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.

마법의 설탕 두 조각



글:미하엘엔더
출판사:한길사

엄마한테 신발 좀 빨아 달랬더니, 세상에, 다 컸다고 스스로 빨아 신으래요.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좀 사달랬더니, 많이 먹으면 배 아파서 안 된대요. 더할 나위 없이 온순한 아이 령켄의 깜찍한 응징 작전이 시작됩니다.

어떤 술거의 죽음



글:조정래
출판사:다림

한국 전쟁 중 불행한 처지에 빠지는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이 경험한 비극의 기원과 극복 방안을 제시한 <메아리 메아리>,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,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가를 보여 주는데...

목차	
알립니다.	1
추천도서	1
독서주간안내	2
다독아, 인기도서	2
독후활동 공모전 우수작	2

도서관에서의 약속

- 사뿐사뿐 걸어요.
- 목소리는 소곤소곤
- 음식물 반입금지
- 장난치지 않아요.
- 게임은 하지 않아요.



독서주간 안내

10월 28일 (월)-11월 1일 (금)

- 10/28 월요일. 이야기 컵 만들기
 - 1-2학년: 독서활동 우수자 (담임 선생님 추천)
 - 3-6학년: 10/10,10/17,10/24 그림책 읽어주기 참가자 (도서관, 선착순)
- 10/29 화요일. 책이 아파요.
 - 전시된 훼손도서를 감상한 후 [작은 실천 나의 약속] 작성하기
- 10/30 수요일. 시가 내게로 왔다.
 - 전시된 동시를 읽고 한 줄 평을 씀
 - 우주자에게 상품수여
- 10/31 목요일. 한자리 집중 독서
 - 1-2학년 12:40~12:55(15분 동안)
 - 3-6학년 14:00~16:30(20분 동안)
 - 한자리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독서를 한 친구에게는 상품수여
- 11/1 금요일. 행운의 복권
 - 대출자에게 행운의 복권을 나누어 줌

- 10/28~11/1. 연체자 사면행사
 - 서약서를 쓰면 연체를 풀어 줍니다.



다독아, 다독반, 인기도서(9.1-9.30)

*정확한 이름은 도서관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.

나는 독서 왕!

- 1위: 유*상 (6-3)-33권
- 2위: 박*윤 (1-2)-28권
- 3위: 김*우 (1-1)-27권
- 4위: 박*빈 (1-2)-25권
- 5위: 박*준 (2-2)-22권
- 6위: 김*은 (4-1)-20권
- 7위: 최*빈 (4-2)-18권
- 8위: 이*례 (3-2)-17권
- 8위: 김*빈 (1-2)-17권

인기도서 Best 5!

1. 엉덩이탐정 시리즈
2. 최강왕 공룡배틀
3. 몰랑이의 숨은 그림찾기
- 4 판다 목욕탕
5. 해리엇

우리 반이 최고!

- 1위: 1학년 2반
- 2위: 2학년 2반
- 3위: 4학년 2반
- 4위: 4학년 1반
- 5위: 3학년 2반



독후활동 공모전 우수작

<<세종대왕을 읽고>>

4-1 최*은

세종대왕님 안녕하세요?

저는 송우 초등학교 4학년 1반 최*은 이에요.

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세종대왕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.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세종대왕님은 먼저 신하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죄인들에게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집현전 학자들이 연구를 끝내기 전에는 주무시지 않고 아무리 병이 들고 아파도 글을 만드셨다는 것이 놀라웠어요. 또 밤늦게까지 연구를 하다 지쳐 잠든 학자에게 자신의 뒤통을 벗어 학자에게 덮어주고 아침까지 굳히 자게 놔두라고 한 것이 감동스러웠어요.

그리고 세종대왕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훈민정음!

세종대왕님은 최만리와 다른 신하들의 반대에도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글을 쓸 수 있어요. 앞으로도 한글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많이 사랑할게요.

2019년 9월 25일 하*이가.